

□ 개요

- 기관명 : 에너지빈곤 계층가구(기초, 장애, 다문화 등)

<수혜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에너지빈곤 계층 가구
- 주 소 : 울산광역시 LH 임대아파트 경비실,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 기초수급 등 단독주택 13가구
- 인원현황 : 수혜인원(50명), 사랑의햇빛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30명

-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 내 용 : ○ 에너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진단 봉사
 - 에너지 취약계층 경비실 9개단지, 20개 경비실에 48kW 태양광 설치
 -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 옥상 및 지붕에 30kW 태양광 설치
 - 기초수급,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단독주택 13가구에 31.2kW 태양광 설치
- 참석자 : 사랑의햇빛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30명
- 작성자 : 부산울산지역본부 동혜윤

□ 내용

- 연탄배달 봉사활동 이후 에너지 소외계층이 의외로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경제소외 만큼이나 큰 사회적 문제라고 느꼈다. 그러던 중 바로 우리 지역본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 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 은 울산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 등 에너지 빈곤계층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시, KBS울산방송국, 한국동서발전 울산본부, 한일전력, 녹색시민포럼 등의 기관이 뜻을 모아 ‘사랑의 햇빛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햇빛 에너지 사업은 연간 약 17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현재까지 미니태양광(260W) 20가구, 태양광발전 설비 25kW, 사랑의 햇빛 개별(2.5kW) 74가구, 사회복지시설 10kW 5개소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및 에너지키퍼(keeping),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을 지원해왔다. 또 2015년의 경우 호치민 빈민초등학교에 10kW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사랑의 햇빛에너지를 세계인들과 나누었고 2019년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아파트 경비실 20개소에 48kW,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 옥상 및 지붕에 30kW를 설치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단독주택 13가구에 31.2kW 태양광을 설치하였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에너지소외계층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의미 있는 활동의 중심에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이 가슴 뿌듯하였다.



사랑의 햇빛에너지 100호 준공식(2019.12.18)을 통해 울산 LH 임대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전기세 걱정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연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의 경우 1회성이라 아쉬움이 많았는데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한 도움은 반영구적이면서 친환경적이고 또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커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본부의 신입 사원으로서 가슴이 뭉클하게 느껴졌다.



올해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은 100회를 맞이했다. 1도에서 시작되었던 사랑의 온도는 이제 100도가 되었다. 보통 온도를 나타내는 최고치를 100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늘 보는 태양은 표면온도가 6000도, 내부온도는 1500만도라고 한다. 한사람이 1도를 높일수 있는 힘을 가진다 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의 0.01%가 힘을 보태면 태양의 표면온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는 표면온도에 이르는 데 까지만 해도 멀고 먼 여정이 남아있고 100회를 넘어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첫걸음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의 햇빛 에너지를 에너지 소외 계층에 나누다보면 태양의 중심 온도에 이르는 그 날에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에너지 소외계층 없이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 날까지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이 에너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